

## I. 서론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써 과거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 (16-17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더 크고 놀라운 '새 출애굽' 즉, 포로 귀환과 영적 회복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동체나 우리의 아픈 기억에 발목이 잡혀 소망을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에 시선을 두라는 소망의 초대이다.

## II. 본론

- 1)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18절): 공동체의 어려움은 우리를 영적 광야에 갇히게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서로를 탓하기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자
- 2)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19-20절): 새로운 비전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공동체에 다시 복음의 생수가 흐르게 하실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사막)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꾸며 자라날 수 있는 영적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 3)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세대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찬송의 울림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 III. 결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며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목장 모임 순서 가이드

1. 찬 양 : 오늘의 결단 찬양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오늘의 결단 찬양 : “나의 가는 길” → 찬양 QR Code



2. 대표기도 : 순번을 정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세요.

3. 나 눔

질문 1)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공동체의 어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시작하실 일들 중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소망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질문 2)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뿜 내신다"는 말씀처럼, 현재 우리 삶이나 교회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가 새롭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문장'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목장이나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신(중보기도, 격려의 말 등)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4. 기도 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목장  
모임**

이번 주 외울 말씀

“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43:16-17)

**암송**

이번 주 성경 통독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4/4(토)	4/5(주일)
삿 9-11	삿 12-14	삿 15-16	삿 17-19	삿 20-21	룻 1-4	삼상 1-2

**통독**

이번 주 QT 말씀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4/4(토)	4/5(주일)
마 26:57-68	마 26:69-75	마 27:1-26	마 27:27-44	마 27:45-56	마 27:57-66	마 28:1-10

**Q T**